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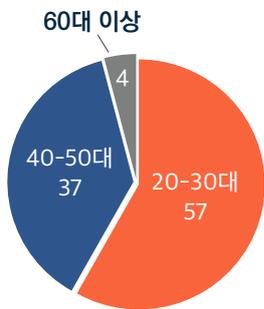
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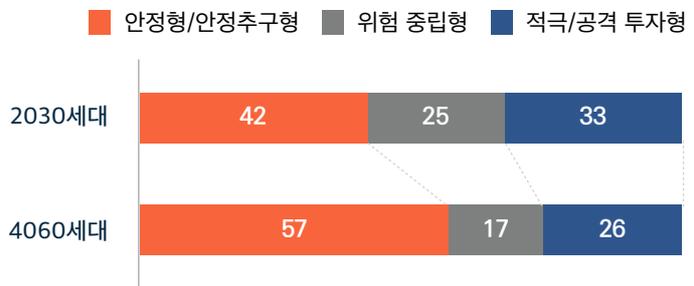
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, '2030세대' 57% 차지!

- '빚투'(빚내서 투자), '영끌'(영혼까지 끌어 모은다) 이란 말이 유행이듯 요즘 개인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,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6개 증권사의 올해 신규 주식 계좌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, 2030세대가 57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각 세대별 투자 성향을 살펴보면, '2030세대'와 '4050세대' 두 그룹 모두 '안정형/안정 추구형'이 높으나 2030세대는 '적극/공격 투자형'이, 4060세대는 '안정형/안정 추구형'이 상대적으로 각각 높은 특징이 나타남
- 주식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경우 빚투/영끌로 대변되는 203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투자 손실이 우려됨

[그림] 올해 신규 주식 계좌 연령대별 비중(6개 증권사**) (%)



[그림] 주식 투자 성향(2030 세대 vs 4060세대)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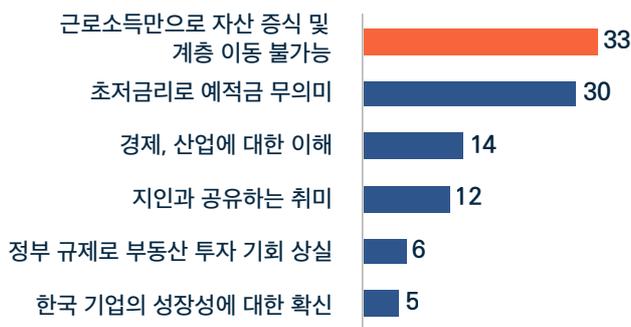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한국경제신문, '월 200만원 모아 집 살 수 있나?...절박함이 부른 주식투자', 2020.09.14.(전국 남녀 20-30대 5,757명, 4060세대 7,000명), <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0091346211>

** 6개 증권사 : 미래에셋대우, NH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삼성증권, KB투자증권, 키움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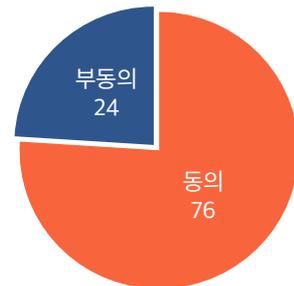
● 2030세대의 주식 투자 동기 1위, '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증식/계층 이동 불가능'

- 2030세대의 주식 투자 동기로는 '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증식 및 계층 이동 불가능'이 33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초저금리로 예적금 무의미' 30%, '경제, 산업에 대한 이해' 14% 등의 순으로 응답함
- 특히 2030세대의 76%가 '근로소득의 시대는 끝났다'고 응답했는데,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경제적 양극화의 고착화와 장기적 저성장 시대, 연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2030세대에게는 마지막 자산 증식 수단이 '주식'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

[그림] 2030세대의 주식 투자 동기(복수 응답) (%)



[그림] 20-30세대의 '근로소득의 시대는 끝났다' 동의율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경제신문, '100만원 다 잃어도 상관없다 ... 2030세대 놀라운 투자법', 2020.09.14(전국 남녀 20-30대 5,757명, 4060세대 7,000명) <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0091345571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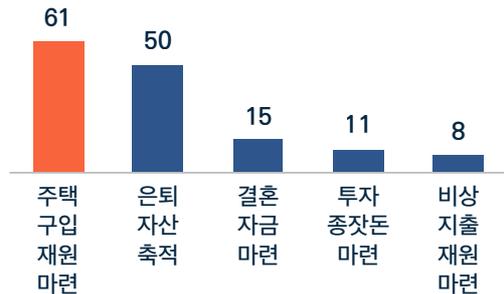
● 2030세대, 주식 투자로 번 돈 사용처 1위, '생활비' 35%

- 주식 투자로 번 돈의 희망 사용처를 질문한 결과, '생활비'가 35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주택 구입비' 24%, '은퇴 자산' 24%, '사치성 소비' 12% 등의 순으로 응답함
- 삶에서의 재무적 목표에 대해서는 '주택 구입을 위해 자원 마련'을 61%로 가장 높게 응답함
- 특히 앞에서의 두가지 질문에 각각 '은퇴 자산' 항목을 높게 응답했는데, 이는 '고령화시대'를 준비해야 하는 2030세대의 반응으로 보임

[그림] 2030세대 주식 투자로 번 돈의 희망 사용처 (복수 응답) (%)



[그림] 2030세대의 재무적 목표 우선 순위(상위 5위, 700명 설문, 3순위까지 응답)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경제신문, '부동산 막자 놓친 2030...주식은 생존수단', 2020.09.13(20-30대, 전국 남녀, 5,757명)
<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0091346211>

● 2030세대 베스트셀러, '에세이'에서 '투자서'로 이동, 올 8월 2030세대 베스트셀러 1위 '돈의 속성'

- 지난 수년간 베스트셀러 상위은 '힐링', '위로' 분야 서적이, 최근 2-3년 간은 자기개발 에세이가 상위권에 위치했는데, 올해는 경제경영서가 상위권에 위치함
- 교보문고 8월 베스트셀러 1위는 '돈의 속성', 2위는 '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', 3위가 '부의 대이동'으로 톱 3가 모두 '돈 버는 법'과 관련한 책임 (%)
- 주식 관련 유튜브 또한 채널 구독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, 1위 '신사임당'(구독자 100만 명), 2위 '슈카월드'(85 만명). 3위 '삼프로TV경제의신과함께'(72만 명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2030세대의 주식 투자를 단순히 주식 열풍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판단하기보다, 사회경제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는데, 계층 간 이동 불가능, 빈부격차 심화, 초 저성장 시대, 코로나19 경제 위기, 고령화시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

[그림] 올 8월 2030세대 베스트셀러(교보문고 순위, 상위 7위)

순위	책 제목
1위	돈의 속성
2위	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
3위	부의 대이동
4위	살고 싶다는 농담
5위	더 해빙
6위	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
7위	존리의 부자되기 습관

[그림] 주식 관련 유튜브 인기 채널 구독자 수 (8월 기준) (만 명)



*자료 출처 : 한국경제신문, "돈 버는 법 제대로 배워보자"...'올로' 외치던 2030이 변했다', 2020.09.15
<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0091532581>